

제11권 13호

2021. 6. 21~2021. 7. 4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남북 관계 전망                                |
| 이슈분석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200대 은행 실적 변화                            |
| 금융경영브리프 |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증가<br>메타버스 금융서비스 개발 본격화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FOMC 점도표 상향에도 영향은 제한적<br>외 환: 테이퍼링 우려 부각되며 환율 급등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br>해외 금융시장                                    |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연구위원 윤병수(hybs)  
연구원 김효섭(hyosupk)

#### 이슈분석

수석연구원 심윤보(simjunil)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장혜원(hwjang)  
연구원 신석영(seokyoung.shin)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남북 관계 전망
- 04 **이슈분석**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200대 은행 실적 변화
- 08 **금융경영브리프**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증가  
메타버스 금융서비스 개발 본격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FOMC 점도표 상향에도 영향은 제한적  
외 환: 테이퍼링 우려 부각되며 환율 급등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남북 관계 전망\*

임 을 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peter@kyungnam.ac.kr)

5.21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두 정상의 진정성이 돋보인 자리였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건설과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상황에서 철저히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지금은 북한 내부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 ∴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동력 확보했으나 아직 未호응

지난 5월 21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대목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 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였다. 이전 사례들을 보면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의 외교성과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분야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합의를 일단 계승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히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 폐기를 선언했다면 북미관계는 벼랑끝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컸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대화,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점도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만했다. 전반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두 정상의 진정성이 돋보인 한미정상회담이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호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달이 지나가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지난 1월에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경제전반의 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토대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합의 존중, 남북관계 지지와 자율성 인정으로 대화동력 확보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김정은, “향후 5년  
대변혁의 시대 열고,  
15년 안에 최고수준의  
행복을 누리는 나라  
만들겠다.”

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제시되었고, 김정은 정권은 이 목표달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특히 향후 15년 내외에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우선은,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 즉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자연재해 등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북한은 이 목표를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실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자본과 자원, 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개혁》, 《개방》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 ∴ 북한 여전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 고수하는 듯

대남 관계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우선 해결 희망

자본주의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식 사회주의에 녹아 있는 고유한 원리와 법칙에 대한 관점, 통찰로 봐야만 이해할 수가 있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추진해온 보통의 나라들에게는 없는 귀중한 자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수십 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토대와 핵전쟁억제력의 완성으로 증명된 능력 있는 과학기술역량, 온갖 시련 속에서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인민의 애국적 열의와 창조적 힘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공세를 내적동력강화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자체로 생존하고 발전하며 도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상황에서 철저히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올해의 과제들 가운데 과학기술역량을 키우고 과학기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것을 핵심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미 관계는  
‘선대선, 강대강 원칙’  
유지

북한은 내부적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며 재편성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 올해 1차년도 목표를 달성한 뒤에 비로소 북미 대화 등 대외 문제에 관심을 돌릴 것으로 보여 조만간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미관계 또는 남북관계 향방은 지난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표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몇 가지 원칙적 입장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자신들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와는 절대로 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남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남북 정상간 합의,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핵무력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대미, 대남 관계에 대한 강경한 원칙을 밝히면서도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 ●● 북한 내부정세 변화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필요

결국 한미 정상의 대화복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건설 집중,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더불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미 정상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기존 합의 존중의사를 밝히면서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제재완화 등 ‘선 적대시정책 폐기’에 대한 공식적, 공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특히 미사일지침 종료는 남북관계 맥락에서는 악재이다. 김명철은 “미국이 남조선의 미사일 족쇄를 풀어준 목적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데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외무성 고위당국자가 아닌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라는 비공식 인물의 논평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반발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나 북한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이는 북한이 당분간 북미, 남북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반응과 태도는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자신들의 원칙적 입장은 시의 적절하게 날카롭게 전하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내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자력갱생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특히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나갈 유일한 출로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에 있다고 강조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금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된 시점이 오면 대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은 북한 내부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오직 내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자력갱생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장면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200대 은행 실적 변화

심윤보 수석연구원(simjunil@hanafn.com)

글로벌 200대 은행은 지난해 대손비용 급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자산성장성,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지표는 대부분 지역에서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대응역량 차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기반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실적회복에는 지역별로 시간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국내 은행권도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순위가 상승한 가운데 지원조치 지속으로 누적된 잠재리스크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등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 ■ 글로벌 200대 은행의 코로나19 전후 실적 비교 결과, 수익성이 크게 하락

- 글로벌 200대 은행은 아시아 78개사, 유럽 65개사, 북미 29개사, 중남미 5개사, 중동 15개사, 아프리카 3개사, 오세아니아 5개사 등으로 구성
- 지난해 글로벌 200대 은행 자산규모는 각 국가의 유동성 공급 및 피해기업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약 15% 성장
- 부실채권(NPL) 비율은 채무상환 유예 등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본적정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
  - NPL 비율(%) : 2.01('19) → 2.01('20) / 기본자본비율(%) : 13.75('19) → 14.31('20)
- 단, 저수익성자산 위주의 성장, 금리하락 등으로 영업이익 증가는 소폭에 그친 반면, 코로나19 관련 대손비용은 크게 증가하며 순이익규모가 약 18% 감소

### ■ 글로벌 200대 은행 지역별 구성

지역	국가명(은행 수)
아시아(78)	중국(33), 일본(13), 한국(8), 인도(5), 인도네시아(4), 대만(4), 태국(4), 싱가포르(3), 말레이시아(3), 홍콩(1)
유럽(65)	독일(7), 프랑스(6), 영국(6), 이탈리아(6), 스페인(5), 스위스(4), 터키(4), 러시아(4), 벨기에(3), 그리스(3), 네덜란드(3), 스웨덴(3), 오스트리아(2), 덴마크(2), 핀란드(2), 아일랜드(2), 노르웨이(1), 포르투갈(1), 폴란드(1)
북미(29)	미국(22), 캐나다(7)
중동(15)	사우디(7), UAE(4), 이스라엘(2), 쿠웨이트(1), 카타르(1)
오세아니아(5)	호주(5)
중남미(5)	브라질(4), 멕시코(1)
아프리카(3)	남아공(3)

자료 : The Banker, BankFocus

[1] The Banker誌가 '20.7월에 발표한 기본자본(Tier 1) 기준 200대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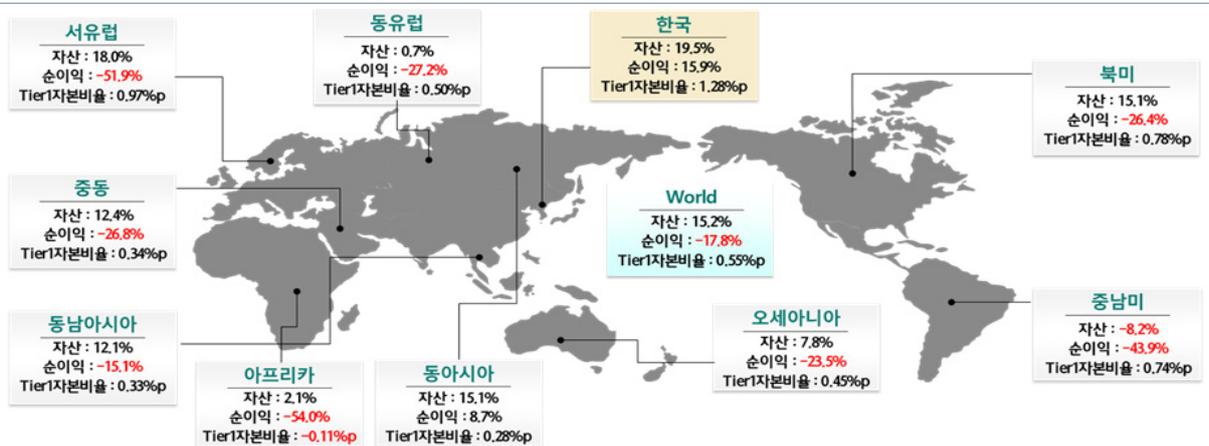
■ 자산 성장성은 각국의 금융지원 여력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에 따라 차별화

- 자산 성장은 효과적인 코로나19 통제, 적극적인 금융지원 등의 조치를 지속한 서유럽, 동아시아, 북미, 중동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총자산 증가율(% , YoY) : 18.0(서유럽), 15.1(동아시아), 15.1(북미), 12.4(중동)
- 반면, 초기 코로나19 통제에 실패했거나, 봉쇄정책 이후 금융지원이 부족했던 중남미, 동유럽 등의 지역은 대출자산이 역성장하는 등 부진한 성장세를 시현
  - 총자산 증가율(% , YoY) : -8.2(중남미), 0.7(동유럽), 2.1(아프리카)
- 주요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확대함에 따라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며 은행권 예금자산도 큰 폭으로 성장

■ 자산 성장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대손비용 급증으로 순이익이 역성장하며 수익성 악화

- 대출자산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원정책 등에 기인한 보증대출 등 저수익 자산 위주의 성장과 금리인하 조치 등으로 순이자이익은 소폭 증가에 그침
  - 대출자산/순이자이익 증가율(% , YoY) : 9.9/5.8
- 영업이익 성장이 미미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당금 적립 확대 등으로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62.8%)하며, 순이익은 전년대비 약 18% 하락
-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본확충 노력으로 자본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순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200대 은행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
  - 글로벌 200대 은행 ROE(%) : 9.51('19) → 7.14('20)
- 동아시아 지역은 유일하게 순이익 규모가 성장하였으나, ROE는 하락
  - 동아시아 지역 순이익/ROE 변화(십억 달러, %) : 284.1/9.43('19) → 308.9/8.94('20)

■ 글로벌 200대 은행 코로나19 이후 실적 변화



자료: BankFocus

■ NPL 비율은 이자 납입유예, 무이자 지원 대출 등 지원내용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

- 서유럽,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적극적인 대규모 부양책과 함께 이자납입 유예, 대출상환 일정 조정, 무이자 지원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며 NPL 비율이 안정화
  - NPL 비율 변화(%p, '19년 대비) : -0.18(서유럽), 0.05(동아시아), 0.21(북미)
-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응 실패, 지원여력 부족 등에 시달린 국가들은 NPL비율이 급증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 우려가 확대
  - NPL 비율(% , '20년 기준) : 5.99(동유럽), 5.55(아프리카), 5.10(중남미)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대출자산 역성장에도 NPL은 급증하며 건전성이 가장 악화
- 다만 NPL 비율이 안정화된 지역 역시, 채무상환유예 조치의 현재 진행 등으로 실제 NPL 규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향후 잠재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강화정책 지속 추진으로 위기 대응력이 제고되면서 자본적정성 지표는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지역별로 그 형태는 상이

- 적절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펼친 국가들은 저위험자산 위주의 성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은행권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주요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
  - 기본자본비율 변화(%p, '19년 대비) : 0.97(서유럽), 0.78(북미), 0.45(오세아니아)
-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도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이는 불황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 축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서 우려가 확대
  - 위험가중자산 증가율(%) : -11.0(중남미), -11.3(동유럽), -0.6(아프리카)
  - 아프리카 지역은 위험가중자산보다 자본금이 더 크게 감소하며 전 지역 중 유일하게 자본적정성 비율이 악화

■ 지역별 NPL 규모 및 비율('19년→'20년)

지역	NPL 규모(십억달러)	NPL 비율(%)
북미	62.5 → 80.9	0.73 → 0.94
서유럽	543.3 → 563.4	3.16 → 2.98
동아시아	272.8 → 326.8	1.28 → 1.32
중동	30.6 → 39.3	2.76 → 3.27
오세아니아	20.0 → 25.4	1.05 → 1.29
동남아시아	65.4 → 68.2	3.09 → 2.99
중남미	30.4 → 27.9	4.97 → 5.10
동유럽	45.4 → 40.6	6.49 → 5.99
아프리카	9.6 → 12.7	4.03 → 5.55

자료 : BankFocus

■ 지역별 위험가중자산 및 기본자본비율('19년→'20년)

지역	위험가중자산(십억달러)	기본자본비율(%)
북미	10,663.6 → 10,897.4	13.43 → 14.21
서유럽	11,372.3 → 12,181.7	16.23 → 17.20
동아시아	22,899.4 → 25,827.6	12.94 → 13.04
중동	1,230.0 → 1,311.6	16.42 → 16.76
오세아니아	1,215.8 → 1,231.0	12.93 → 13.38
동남아시아	1,979.7 → 2,108.2	15.61 → 15.94
중남미	754.2 → 671.3	13.79 → 14.53
동유럽	1,474.5 → 1,307.8	8.44 → 8.95
아프리카	211.5 → 210.3	12.70 → 12.59

자료 : BankFocus

■ 100대 은행 순위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국내은행 순위도 상승

- '10년대 초반 최상위권은 주로 英, 美 은행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中 은행성장이 크게 부각되며, '17년부터 Top 4를 중국은행이 독식
- 20위권 내 中 은행 수도 7개에서 9개로 확대되는 등 中 은행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中 Big4 은행과 美 Big4 은행의 기본자본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나타남
  - 美 Big4 은행 대비 中 Big4 은행 기본자본(배) : 1.40('17), 1.52('18), 1.72('19), 1.90('20)
- 100위권 내 국내은행 수는 6개로서 전년대비 1개 감소하였으나, 6개 은행의 순위는 모두 상승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 KB 60위(▲1), 신한 61위(▲4), KDB 62위(▲5), 하나 71위(▲10), IBK 88위(▲8), 우리 90위(▲1), NH농협 102위(▼2)

■ 수익성 악화 형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향후 실적 회복에 시간차가 발생할 전망이며, 코로나19 지원정책으로 인한 잠재리스크 및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도 대비할 필요

-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한 자산 성장세가 나타났으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기반 축소가 동반된 실적 악화를 보여, 향후 지역별로 실적회복 속도는 차별화될 전망
- 영업기반이 성장한 지역도 이자납입 유예 등 각종 지원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잠재리스크가 향후 정상화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국내 역시 잠재리스크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열풍에 기인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증대되는 모습
  - 국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Q 최초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세도 최근 1년간 전세계 3위를 기록하며 우려가 확대

■ 국내은행의 글로벌 순위 변화

Rank No.	△	은행	Tier1 (십억달러)	연도별 순위				
				'15	'16	'17	'18	'19
60	▲1	KB금융	33.9	64	59	60	59	61
61	▲4	신한금융	33.3	70	68	66	63	65
62	▲5	KDB	33.1	58	64	61	64	67
71	▲10	하나금융	27.1	81	80	79	77	81
88	▲8	IBK	22.1	108	102	93	95	96
90	▲1	우리	21.5	95	88	89	91	91
102	▼2	NH농협	18.9	106	110	105	101	100

주 : 순위는 기본자본(Tier1) 기준  
 자료 : The Banker(July, 2020), BankFocus

■ Top 10 은행 순위 현황(기본자본 기준)

'20 순위	은행	국가	Tier1(십억 달러)	
			'19	'20
1	ICBC(1)	중국	380	440
2	China Construction Bank(2)		316	361
3	Argricultural Bank of China(3)		278	336
4	Bank of China(4)		258	305
5	JP Morgan Chase(5)	미국	214	235
6	Bank of America(6)		188	200
7	Citigroup(8)		156	167
8	HSBC(9)	영국	148	160
9	Wells Fargo(7)	미국	159	158
10	MUFG(10)	일본	144	144

주 : 괄호 안은 전년도 순위  
 자료 : The Banker(July, 2020), BankFocus

##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증가

장혜원 연구원(hwjang@hanafn.com)

코로나19로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데이터 남용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美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신원 도용 위험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개인데이터 보안과 관련하여 빅테크기업 대비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디지털 경제의 확장과 함께 부각되는 개인데이터 남용과 안전 우려를 해소하면서 전통적 금융기관의 장점을 활용하여 소비자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 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확장되면서 개인 데이터 남용과 안전에 대한 우려 제기<sup>1)</sup>

- 경제의 디지털화가 확장되고 금융서비스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 수집과 축적이 소비자의 분명한 동의나 이해 없이 진행
- 코로나19로 원격근무와 사람들의 온라인 이용시간 등이 급증하면서 사용자의 디지털 행적을 활용한 온라인쇼핑 광고, 개인화된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활발
- 개인 데이터의 활용은 고객 맞춤형 상품 제안이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데이터 남용, 소비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 안전 우려도 존재

### ■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가장 신뢰

- 美 소비자 기대조사(SCE)<sup>2)</sup>에 따르면 정부기관, 빅테크, 핀테크기업, 전통적 금융기관 가운데 소비자들은 전통적 금융기관을 가장 신뢰
  - 우선순위는 전통적인 금융기관, 정부기관(연방정부 및 州정부 등), 핀테크(Paypal, Venmo, Quicken loans 등), 빅테크(Amazon, Apple, Facebook, Google 등) 순
- 17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YouGov조사에서도 개인데이터 사용에 있어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남<sup>3)</sup>
  - 금융기관 55%, 의료기관 44%, 정부기관 37%, 제약회사 15%, 온라인 리테일 14%, 소셜 미디어 회사 8% 등

[1] "Whom do consumers trust with their data? US survey evidence", BIS, 2021.5.27

[2]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이 매월 실시하는 인터넷 기반 조사로 2013년 런칭

[3] "Global data: Which sectors do consumers trust most with their personal data", YouGovAmerica, 2021.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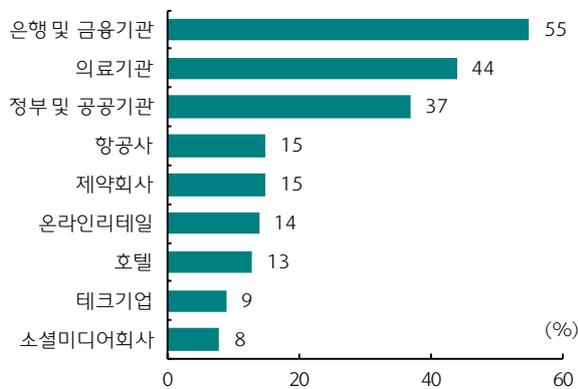
■ 개인데이터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약 90%가 신원 도용을 우려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성별, 인종, 연령, 소득, 금융 활용능력 및 위험 감수 성향별 모든 통계 그룹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신원 도용 위험을 가장 우려
- 팬데믹으로 개인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 반면 사람들의 데이터 공유 의지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여성과 60세 이상 그룹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규정 강화,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오픈뱅킹 및 결제에서 개인데이터 사용 제한 등 국제사회의 규제 수준과 범위가 확대
  - GDPR, CCPA, 중국 사이버보안법, 브라질 일반데이터보호법 등의 법제정과 최근 CBDC 설계시 거래 데이터 접근 자격 기준 등 추가적인 논의들도 제기

■ 디지털 경제의 확장과 더불어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요구

- PwC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76%가 기업과의 개인정보 공유를 대안 부재로 선택하는 ‘필요약’이라고 응답했으며, 52%는 데이터 보안을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현재의 플랫폼을 떠날 수 있다고 응답
- 향후 빅테크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들의 안전 우려 해소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
  -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의 장점을 활용하여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요구 

■ 개인 데이터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신뢰 수준<sup>4)</sup>



자료 : YouGovAmerica(2021)

■ PwC의 소비자 신뢰조사 주요 항목<sup>5)</sup>

조사항목	응답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에서 사용처 확인, 사용 제한 등 개인의 통제권은 거의 없음	그렇다 67%
데이터 위반을 허용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이유	이익>위험 67% 대안 없는 ‘필요약’ 76%
소비자 데이터 보호는 업체의 책임	그렇다 86%
소비자 데이터 보호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 현재의 플랫폼 이탈	그렇다 52%
기술발전이 기업의 개인 데이터 보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	높아지고 있다 21% 하락하고 있다 28%
현재 거래하는 기업이 향후 데이터 위반 문제를 겪을 가능성	겪을 것이다 60%

자료 : PwC

<sup>4)</sup>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멕시코 등 17개 주요시장 조사결과

<sup>5)</sup> “Consumers trust your tech even less than you think”, PwC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 메타버스 금융서비스 개발 본격화

신 석 영 연구원(seokyoung.shin@hanafn.com)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진입과 정부 지원책이 구체화 되고 있다. 금융권 역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AR/VR 금융 App 등 금융 중심의 서비스가 일반적이다. 다만, 향후 가상경제의 부상 가능성이 높아 타업종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형 서비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타버스 금융서비스 개발에는 용이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도입분야 선정, 서비스 구체화, 비용편익 분석 등 3단계 프로세스의 검토가 중요하다.

### ■ 메타버스(Metaverse)의 부상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기업 및 정부의 참여도 본격화

- 메타버스는 AR/VR로 구현되는 모든 가상현실을 의미하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뉴노멀, MZ 세대 부상 등을 배경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sup>1)</sup>
  - 메타버스 시장 전망(달러): 455억('19년) → 4,764억('25년) → 15,429억('30년)
- Apple, Google 등 글로벌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 제품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구체화
  - ('20.10월) Apple은 최신 아이폰 기종에 AR 기능을 탑재한데 이어 '22년에는 AR Glass도 출시 예정이며, Google도 최근 스마트 글래스 업체를 인수
  - ('20.12월) 정부가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과의 얼라이언스 구축

### ■ 선도 금융사는 금융 중심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 업무 및 고객 상담에 활용

- 국내외 선도 금융사 역시 업무 영역에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메타버스 금융시장 선도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
  - Citi 은행은 트레이더 전용 AR 분석기(Holographic Workstation)를 개발하여 금융 자료 분석 및 효과적인 팀워크와 원격 의사소통에 활용 중
  - Common Bank와 HSBC는 상품 소개 및 고객 상담용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
- 현재까지의 메타버스 금융 서비스는 AR/VR 기술을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연계하는 '금융 중심형'이 주류이며, AR/VR 기능을 연계한 App 개발이 일반적
  - 금융 중심형 서비스는 AR/VR 금융 App과 같이 메타버스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파일럿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 중

[1] "메타버스의 부상과 금융업",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1.04

■ 향후 가상경제를 중심으로 비금융사와의 ‘연계형 서비스’도 보편화될 전망

- 최근 메타버스 산업은 단순 AR/VR 도입을 넘어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경제 플랫폼이 부상하고 있으며,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
  - 가상경제는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화폐와 자산을 통해 구성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실 경제와 연결되는 것이 특징
  - 가상경제가 작동되는 온라인 공간인 가상경제 플랫폼으로는 제페토(Zepeto), 로블록스(Roblox),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등이 존재
- 가상경제 성장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 등 비금융기업과 금융기업 간 연계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온오프라인이 연결되는 O2O 금융도 주목할 필요
  - 연계형 서비스는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이 연계된 메타버스 금융서비스로, 가상경제 플랫폼에서의 금융상품 연계, 유통업과의 제휴를 통한 O2O 금융 등이 가능
  - 연계형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 진출과 신규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금융업의 새로운 장을 제공할 전망

■ 도입 용이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메타버스 금융서비스 선정이 중요

- 메타버스 서비스 도입에 앞서, Value Chain 차원의 서비스 도입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용이성(feasibility)과 효과성(effectiveness) 검토가 필요
  - 용이성은 서비스 실현가능성을 의미, 자체개발과 외주가 가능한 경우 용이성 제고
  - 효과성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금융사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의미하며, 금융사의 목표는 수익창출, 신규고객 유치, 마케팅 활동 등 다양할 수 있음
- 메타버스 서비스 도입 분야가 결정되면 관련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유형(금융 중심형 or 연계형)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된 서비스의 비용편익 분석을 실행
  - 편익은 앞서 정의된 메타버스 서비스 도입에 따른 목표로 측정 가능 

■ 메타버스 금융서비스 사례

기업명	도입 내용	유형
Common Bank (濠)	• AR App을 통해 주변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스캔, 오프라인 부동산 분석 업무를 대체	금융 중심형
HSBC (英)	• AR App으로 카드 등 상품 소개 • 고객 대상 금융교육에 활용	
Capital One (美)	• 차량용 대출 App Auto Navigator를 개발하고 AR 기능을 탑재, 차량대출용 원스톱 서비스에 활용	
DGB (韓)	• 가상경제 플랫폼 제페토를 연계하여 메타버스 금융점포 개설 예정	연계형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메타버스 금융 서비스 도입 프로세스

단계	정의	고려사항
1단계: 도입 분야 선정	Value Chain 차원에서 도입 분야 선정	• 용이성: 서비스 실현 가능성 • 효과성: 도입 시 목표 달성 가능성
2단계: 서비스 구체화	선정 분야에 도입할 서비스 구체화	• 금융 중심형 or 연계형 고려 • 국내외 관련 사례 참조
3단계: 비용/편익 분석	도입 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	• 편익의 경우 1단계에서 고려된 서비스 도입의 목표로 측정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리: FOMC 점도표 상향에도 영향은 제한적

김수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대외금리는 물가가 급등하고 FOMC 참가자들의 금리 인상 전망 시점이 앞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압력이 제한되었다. 가파른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에 비해 중앙은행 스탠스가 매우 신중한데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인식, 풍부한 유동성의 국채 시장 유입이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금리 인상 경계와 국고3년 지표 변경도 맞물려 단기물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반기말 이슈와 대외금리 안정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물가 지표 급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중앙은행의 신중한 스탠스 확인으로 금리 상승 제한

- 미국 5월 비농업부문의 임금상승률(YoY)이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 등으로 2.0% 상승(예상치 1.6%)했으며 5월 CPI(YoY)도 5.0%로 급등
  - 물가 급등은 일시적 요인인 에너지, 중고차, 항공권 등의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
- ECB는 팬데믹 지속과 일시적 인플레이션 평가 속에 PEPP 종료 논의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면서 3/4분기에도 연초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매입을 이어갈 것을 발표
- 美 국채 10년 금리는 물가 지표 급등과 FOMC 점도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인식과 실업급여 지표 부진으로 1.4%~1.5%대에서 등락
  - 獨 국채 10년물은 ECB의 완화적 스탠스로 하락(5.18일 -0.10% → 6.17일 -0.24%)

### ■ 국내 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히 축소

-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대다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누증을 근거로 통화정책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첫 인상 이후 점진적 인상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언급됨
  - 한은 총재 역시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는 정책 정상화가 시행될 것임을 언급하고 부총재는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완화적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님을 강조
- 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이 2년 이하 단기물은 물론, 3~5년물 국채 매수를 확대(5.1~6.16일 21.2조원 순매수)해 보유 잔고가 4월말 174조원에서 183조원으로 증가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경계와 국고 3년 지표물 변경에 따른 기술적 상승 조정 등으로 단기물이 상승한 반면, 장기금리는 대외금리에 연동하여 하락
  - 6.1일~17일 중 금리 변동(bp): 국고1년 +26, 국고3년 +10, 국고10년 -10

■ 6월 FOMC, 점도표는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나 파월 의장은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

-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수준을 유지하고 단기자금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감안해 IOER과 역RP 금리를 각각 5bp씩 인상하는 미세조치 시행
- 경제 전망의 경우, 최근 경기 회복세와 물가 급등을 배경으로 큰 폭 상향 조정되었고 '23년말까지 2회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 수도 과반 이상으로 확대
  - '21년 경제전망(% , 3월→6월): 성장률 6.5→7.0, 근원 PCE 2.2→3.0, 실업률 4.5→4.5
- 파월 의장은 참석자 개인 견해인 점도표를 금리 인상 예측치로 보기 어렵다며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1~2년 내 강한 고용회복을 예상하는 등 자신감을 드러냄
-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했고 자산매입 규모 조정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할 것임을 재강조
- 금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내년 초 개시가 전망되며 금리 인상은 QE가 종료된 후인 '23년 상반기 시작이 유력

■ 국내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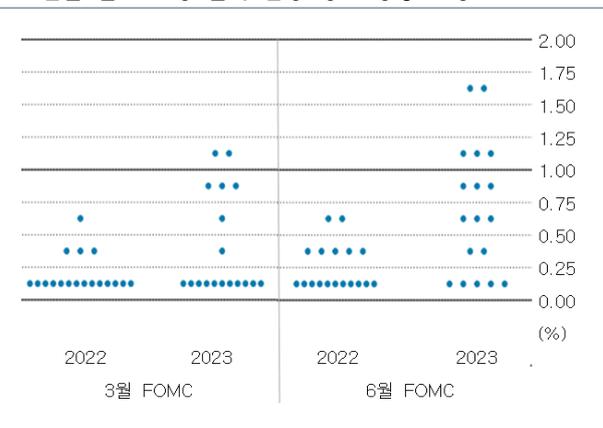
- 미국 금리는 주요 중앙은행의 사후대응적 정책 정상화 시도, 인플레이션 민감도 약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의 국제 시장 유입 등으로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
- 국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은 물론, 반기말 계절적 요인(단기자금 수요에 따른 단기채 매수 약화)까지 맞물려 당분간 상승압력이 우세
- 다만 장기금리는 6월 한은의 채권 추가매입 계획, 대외 장기금리 상승압력 약화, 상반기 초과 세수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부담 해소로 하향안정 예상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1.25%~1.40%, 2.00%~2.15% 범위로 전망 

■ 6월 금통위 의사록 위원별 의견 개진

위원	의견
A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시 단기 부양 효과보다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제한,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로 중장기 성장에 부정적
B	완화적 금융상황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요인. 이례적으로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 검토가 필요
C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레버리지 추가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화정책적 고려 필요성 증대. 다만 민간소비와 고용 개선이 좀 더 견고해지도록 지원할 필요
D	팬데믹 이전의 잠재성장 추세로 되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경기확장의 탄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E	마이너스 GDP 갭 해소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통화정책과 시장금리, 금융불균형 악화를 주시해야
F	금융불균형 누중, 통화정책 여력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완화 정도의 조정 시작이 지나치게 미루어져서는 안되며, 그 이후의 과정은 시장 반응과 경기상황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연준 점도표 상 금리 인상 경로 상향 조정



자료 : FRB,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외환: 테이퍼링 우려 부각되며 환율 급등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그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하며 완화적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선호가 이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1,110원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 결과로 조기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로 반등하였다. 급등폭은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당분간 테이퍼링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15~1,135원을 중심으로 높은 변동을 보일 전망이다.

### ■ [원/달러 환율] 美 조기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원/달러 환율 1,130원대로 급등

- 원/달러 환율은 6월초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및 채권 순투자가 이어지고, 개인들의 해외주식 순매수가 약화되면서 1,110원대 초반으로 소폭 하락
- 그러나 美물가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되고 예상보다 매파적인 6월 FOMC 결과 발표가 위험선호 심리를 훼손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로 급등
- 한편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직접 및 증권투자 배당지급액은 \$54억을 기록(올해 외국인 배당금 14조원)하여 작년대비(배당금 8조원 중 \$45억) 역송금률이 낮아짐

### ■ [국제 환율] 매파적 FOMC 확인 뒤 위험선호 심리가 훼손되며 강달러 시현

- 달러인덱스는 예상보다 부진한 5월 고용보고서를 확인하며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6월 FOMC 결과 발표 후 조기 긴축 우려가 불거지며 91pt대 후반으로 급등
  - 파월 의장은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시적'이라는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시장은 점도표 조정('23년까지 2회 인상)과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 조정에 반응
- 유로화는 백신 보급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온건한 ECB 스탠스 확인, 영국의 봉쇄 해제 계획 지연 발표, 강달러 영향등으로 1달여 만에 유로당 1.20달러 하회
  -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세가 확인되기 전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을 종료(22.3월말 예정)하는 것은 현재 매우 시기상조임을 강조
- 위안화는 최근 가파른 강세 흐름(달러대비 3년래 최고치)에 대한 中외환당국의 속도 조절 노력이 이어지고 경제지표가 둔화되면서 달러당 6.4위안대로 반등
  - 9일, 美 '공급망 100일 조사 행정명령' 결과 발표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지속 의지가 확인되었으나 당장 갈등이 표면화 되지는 않아 시장 영향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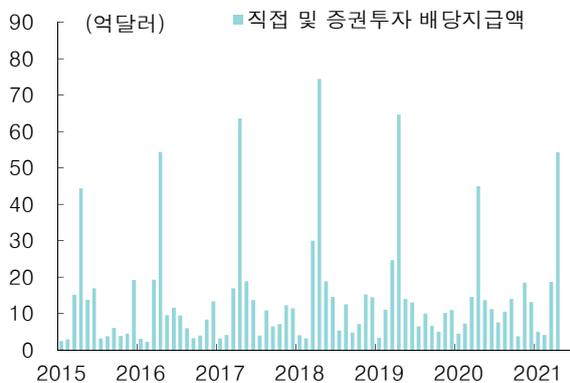
■ 글로벌 조세 개혁 흐름은 중장기 선진국 통화 강세를 뒷받침

-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문제(BEPS)가 대두되면서 '12년부터 G20과 OECD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조세 개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 '19.1월, BEPS 대응을 위한 두 가지 과세 접근법(Pilar 1: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권 부여, Pilar 2: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발표
- 올해 6월초 G7 회의에서는 Pilar 1,2의 구체적 방안 도출 및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도입이 미국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개편, 큰 정부 환경 도래, 빅테크 기업 과세부담 증가 등의 영향이 예상됨
  - 미국은 최저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EU가 주장해온 디지털세를 폐지시킴으로써, 자국 플랫폼 기업에 미칠 실질적 악영향을 제한하는 복안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
- 물론 실제 도입까지는 긴 시간이 예상되나, 코로나 위기 후 세수 확보 및 신흥국으로 자본유출 방지 필요성 등이 선진국의 조세개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
- 외환시장 영향은 美 정책추진력 강화 및 재정적자 부담 완화에 따라 중장기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그동안 조세회피처로 역할을 해왔던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向 수출 및 FDI 감소 등으로 자국 통화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같은 국제조세 변화 흐름 역시, 신흥국 경제 및 통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중장기적 요인으로 판단됨

■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이 당분간 지속되며 환율 하단을 제한

- 당분간은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1,115~1,135원을 중심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 다만 3Q부터 집행될 EU경제회복기금과 관광업 재개 등에 따른 유럽 경기 모멘텀 강화 기대가 남아 있어 달러화의 일방적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 

■ 국제수지에 나타난 실제 역송금된 외국인 배당금



자료 : ECOS

■ 원/달러 환율과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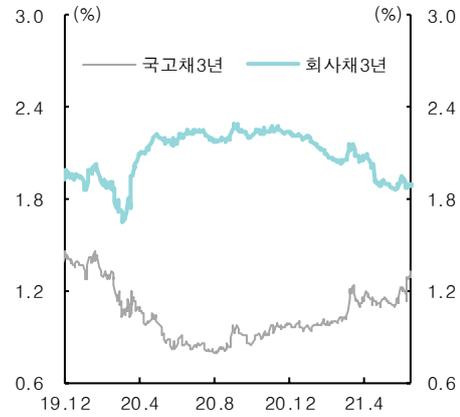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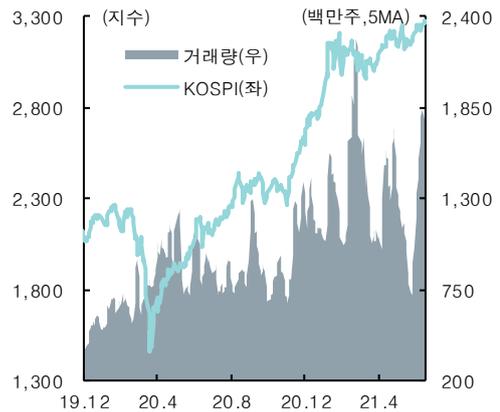
###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5월말	0.51	0.66	0.83	1.95	1.23	1.74
06월 11일	0.50	0.66	0.96	1.87	1.28	1.66
06월 14일	0.47	0.66	1.01	1.88	1.29	1.67
06월 15일	0.47	0.66	1.04	1.90	1.31	1.69
06월 16일	0.47	0.66	1.08	1.88	1.29	1.69
06월 17일	0.48	0.66	1.09	1.90	1.33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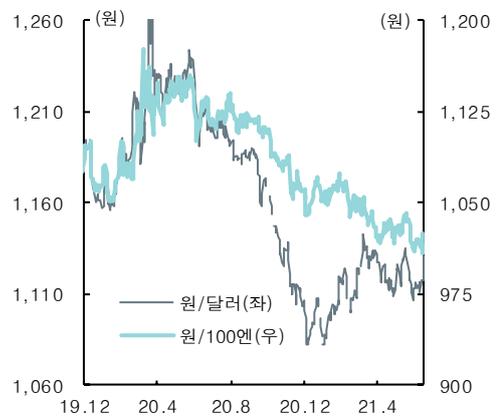
###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20년말	2,873.5	1,074	416	-3,404
5월말	3,203.9	140,174	1,124	5,204
06월 11일	3,249.3	179,563	1,646	1,765
06월 14일	3,252.1	152,625	1,665	-101
06월 15일	3,258.6	148,383	1,734	-1,211
06월 16일	3,278.7	162,980	2,346	2,875
06월 17일	3,265.0	146,721	1,849	-3,217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20년말	1,086.3	166.3	166.0	1,297.1
5월말	1,105.9	1,013.4	174.4	1,358.0
06월 11일	1,110.8	1,012.6	173.6	1,344.8
06월 14일	1,116.7	1,014.5	174.5	1,353.4
06월 15일	1,117.0	1,014.4	174.3	1,354.4
06월 16일	1,117.2	1,009.0	174.6	1,340.0
06월 17일	1,130.4	1,025.4	175.3	1,3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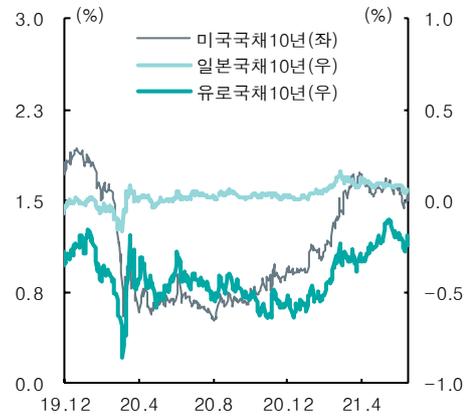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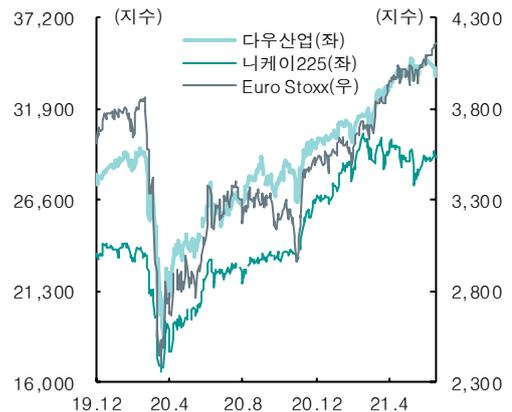
### ●●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5월말	0.06	0.13	0.14	1.59	0.09	-0.19
06월 11일	0.06	0.12	0.15	1.45	0.04	-0.27
06월 14일	0.06	0.12	0.16	1.49	0.04	-0.25
06월 15일	0.06	0.12	0.16	1.49	0.05	-0.23
06월 16일	0.06	0.12	0.21	1.58	0.05	-0.25
06월 17일	0.06	0.13	0.21	1.50	0.06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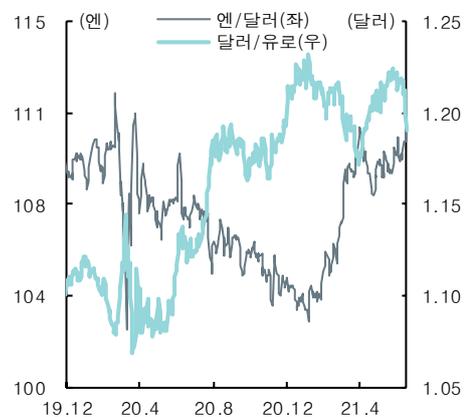
###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5월말	34,529.5	28,860.1	3,615.5	4,039.5
06월 11일	34,479.6	28,948.7	3,589.7	4,126.7
06월 14일	34,393.8	29,161.8	-	4,132.7
06월 15일	34,299.3	29,441.3	3,556.6	4,143.5
06월 16일	34,033.7	29,291.0	3,518.3	4,151.8
06월 17일	33,823.5	29,018.3	3,525.6	4,158.1



###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5월말	109.55	1.222	67.9	1,905.3
06월 11일	109.62	1.211	71.2	1,879.6
06월 14일	110.06	1.212	72.0	1,865.9
06월 15일	110.07	1.213	71.8	1,856.4
06월 16일	110.71	1.199	72.8	1,861.4
06월 17일	110.19	1.191	72.4	1,774.8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1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1년 6월 19일 인쇄

2021년 6월 21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윤병수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1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